

청소년 예체능 이끄는 불자 양성

조계종 직할교구, 제4회 선재장학금 전달식

조계종 직할교구가 수도권포교 활성화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예체능계열 전공 중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5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4회 직할교구 선재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10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선재장학금은 중고등부 예체능계열 전공 학생 가운데 직할교구 소속 사찰에서 모범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장학금 대상자는 △심예린(국립전통예술중2, 해금) △박철희(아현중3, 축구) △조웨이(선화예술중3, 회화) △김연우(인덕원고1, 메이크업) △정우정(안성고1, 회화) △전아형(광탄고2, 축구) △박채연(영신여고3, 피아노) △엄모빈(서울체고3, 배드민턴) △안진우(동성고3, 연기) △김서현(인천백석고3, 작곡) 등이다.

이 자리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호섭 기자



"원효성지 장안사 순례 인연"

53기도도량 순례단, 부산 장안사 참배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이 천년고찰 장안사를 방문했다.

53기도도량 순례단은 5월 17~18일 장안사를 방문, 108참회 기도와 평화의 불을 분등하고 기념비 제막식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108장학금을 우현빈(장안중2), 이하명(동국대4) 학생에게 전달했다. 장학금은 각 53만원으로 기도도량 순례단이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선재동자의 마음을 표현했으며, 선묵 혜자 스님은 학생들이 선재동자처럼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도량을 다니며 신심을 닦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며 바로 이곳이 극락정토"라고 말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부처님 열반상이 있는 원효성지 장안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좋은 인연을 맺고 복을 짓는 것"이라며 "좋은 인연의 복을 아름답게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더불어 사는 것 복지는 일상이죠"

Interview

35년 교수 생활 회향한 보각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5월 20일 중승대서 퇴임법회
교직 회향하며 법문집 출간도
지역 포교하며 '대중 속으로'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중앙승가대 발전을 함께 해왔고, 많은 스님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중앙승가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5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한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스님은 퇴임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보각 스님은 스님 최초 사회복지학 전공자로 한국불교 사회복지의 선구자이자 태두로 손꼽힌다. 1967년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5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상지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를, 중앙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다. 상지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5년부터 중앙승가대서 교편을 잡으며 35년 동안 승가 사회복지 인력 양성에 매진해왔다.

교편을 잡은 시간이 긴 만큼 보각 스님은 "나보다 제자가 많은 스님은 없다"고 자부한다. 실제 현재 불교사회복지기관 대표의 80%가 보각 스님의 제자로, 그 수만 1천여 명에 달한다.

보각 스님이 당시에는 일반인에게도 생경한 사회복지학을 시작한 인연은 속가 모친 때문이다. 말년 향림사에서 봉사하며 지내던 모친을 보며 은사였던 천운 스님이 "네 어머니만큼만 살라"고 스님을 경책할 정도로 모친의 신심과 자비심은 남달랐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세운 불교 사회복지 원력은 보각 스님이 강단과 현장을 오가는 사회복지학자이자 실천가의 삶으로 나아가게 했다. 사회복지를 시작한 이래 주지 소임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만 활동했다. 그렇다면 스님이 생각하면 사회복지는 무엇일까. 스님은 곧장 이야기했다.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그러면서 "일상이 사회복지다. 꼭 기관에서 대상을 수용해서 서비스하는 게 복지가 아니다. 모두가 섞여서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지"라고 했다.

35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한 현재 보각 스님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강진 백련사 주지로 취임하며 사찰 운영과 지역 포교·전법을 시작한 것이다. 대중 속에서 함께 하겠다는 원력의 외연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이다.

"사실 단체나 기관 살림을 운영해 봤으니 아예 초임 주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단체를 운영하는 것과 사찰 살림을 사는 것은 차이가 많더군요. 그래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올해에는 백련사와 지역문화를 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진불교대학도 맡아 운영 중인데 조금 더 지역을 위한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각 스님은 교수 생활을 회향하며 법문집 〈눈물만 보태어도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를 발간했다. 스님은 책을 통해 붓다의 출생에서 출가, 성도, 열반, 가르침을 선사들의 경구를 인용해 쉬운 말로 풀어냈다.

"국내 토목기술로 네팔불자 취업 장려"

터널 개발 특허기술 수출하는 정재민 표준이앤씨 대표이사

지하공간개발 전문 토목회사를 운영하는 국내 불자기업인이 말레이시아 내 네팔불자들의 취업 장려에 나선다. 주인공은 자체개발한 토목기술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네팔불자들로 꾸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정재민 표준이앤씨(주) 대표이사<사진>다.

정재민 대표이사는 5월 20일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공사가 구축하는 지하 전력설비 공사인 '지중전력구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평소 네팔 어린이 장학사업을 펼치는 한국자비공덕회와 인연이 있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의 취업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만 40여만 명의 네팔인 근로자가 생활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한국자비공덕회(회장 지상)가 네팔에서 장학사업을 펼치며 초등학교부터 전문대학까지 졸업을 지원, 한국어가 가능한 네팔불자들이 많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터널 기능공이면서 한국어에 능숙한 주한 네팔인 일부가 말레이시아로 재취업하고, 현지 기능공과 연대해 작업원을 꾸린다는 게 정 대표의 밑그림이다.



정 대표는 말레이시아에 DSM공법을 수출한다. DSM공법은 철도·도로 횡단터널 및 다목적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비개착공법으로 모래·자갈 등 토사지반에도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어지는 말레이시아 공사에는 100명 이상의 작업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많은 네팔불자들의 근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1990년대부터 부부 도반들과 함께 불교공부모임을 이끌어온 거사다. 당시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인연을 맺은 30대 부부들의 취미 모임이 자연스레 불교공부로 이어졌다.

정 대표는 이번 말레이시아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지방 불교공동체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은퇴 후 서울살이가 어려운 불자들과 함께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경기도 양평에 마련하고 있다.

정 대표는 "부지를 마련해 토목기술 재능기부로 작은 마을을 꾸리고, 불교 소공동체가 각자의 신행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스카우트, 방송인 꿈 키워

단원 50명 수원 KBS드라마센터 견학



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성행)은 5월 18일 수원 KBS 드라마센터를 견학했다. 청계사, 수원사, 연맹직할대, 정각사 등 4개 사찰과 단체 어린이 50여 명은 방송인 체험 시간을 보내며 미래 방송인으로서의 꿈을 키웠다. 청계사 이현준 군(13)은 "직접 기상캐스터 역할을 해보니 진짜 방송인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지역민과 호흡하는 문화축제

한솔종합사회福 '연등물결 한솔愛잔치'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은 5월 15일 분당 한솔마을 7단지서 제19회 '연등물결 한솔愛잔치'를 진행했다. '한솔愛잔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사회활동, 주민노래자랑 등이 이어졌으며, 1,500여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관장 가섭 스님은 "앞으로도 행복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울산불교 발전에 큰 도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봉축법요식 봉행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5월 12일 대웅전에서 불기 2563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정갑윤·이상헌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법요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장 취임 전 화합제부터 연등 장엄 제작과정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다"며 "울산시 제등행렬에 관심 갖고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청 광장을 처음으로 내줄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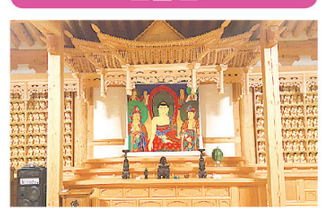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만 월 등



천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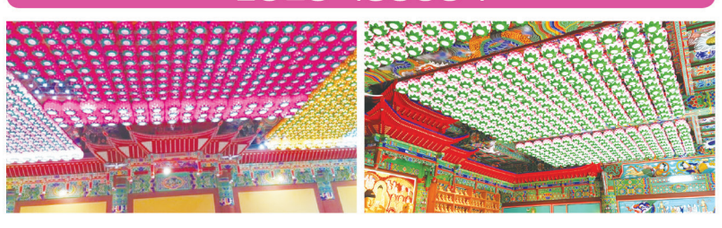
공 단 등



위 패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